



李相文

◦ 전남 나주 출생 / <월간 문학> 신인작품상 당선 / 장편 「황색인」(전3권), 창작집 「살아나는 꿈」, 「영웅의 나라」 자선집 「은밀한 배반」발간 / 대한민국문학상(86), 윤동주문학상(89)수상 / 창작동인

<<소설가>>

철수 는 버스에서 내린 뒤 서서히 걸었다. 무더위와 함께 여름이 지나가자 그에게 생긴 버릇이었다. 초가을 밤, 집으로 가는 골목을 산책하듯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몸에 쌓인 피로가 짝 풀리고 가슴은 애드벌룬처럼 기대감으로 부풀게 되었다.

그는 그 기대감을 즐겼다. 얼굴을 간지럽히는 시원한 밤바람과 풀섶과 담장과 섬돌밑에 숨어서 우는 귀뚜라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 속에서 한껏 부풀어 오른 기대감을 즐기는 것이었다.

그가 평소에 그리던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나리라는 기대감, 그리하여 그 여인과 수줍게 말을 주고 받다가 다음을 약속하게 되리라는 기대감. 거기서 더욱

발전하여 1년 뒤에나 그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또 세월이 더 흐르게 되면 여인을 꼭 빼어다닮은 여자 아이 하나를 낳게 될 것이고, 두사람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서 고궁이며 미술전시회며 연극을 보러 가게 될 것이라는…….

하기야 철수의 나이도 어느새 스물 일곱이었다. 그의 그런 기대감은 고등학교에 들어간 소년이 잠자리에서 몽정을 하고 중학교에 들어간 소녀의 가슴이 꽃사과처럼 봉긋이 솟아오르는 현상과 다를 바 없을 것이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었다.

돌아보면 철수는 그 동안 정신없이 살아 왔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었다. 여섯 살때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입시와 입시

학원과 학원의 숲을 헤치며 전투하듯 기진맥진하여 살아 왔으며, 2년 전에야 겨우 오성 그룹의 대양화재보험주식회사라는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종착역이라고 해서 그를 가만 놔두질 않았다.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영어회화다 일어회화다 회의다 토론이다 해서 아침시간을 보내고 나면, 줄줄이 업무가 이어졌다. 그래서 저녁은 회사에서 먹는 날이 많았고, 따라서 퇴근은 밤 9시면 빠른 편이었다.

그야 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꿈마저 가져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던 철수가 그 가마솔 같던 무더위가 입추 말복 처서와 함께 갈수록 기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피부에 와서 당게

되면서부터 기대감에 부풀게 됐다는 것이다.

기대감을 갖게 된 계기는 간단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던 철수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발견한 것이다. 그 며칠 사이에 새로 문을 연 것인지, 아직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 속에 묻혀있는 레스토랑은 겉모습만 보아도 눈이 부실만큼 화려했다.

그는 레스토랑 앞에서 침을 꿀꺽 삼켰다. 당장에 배가 고프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같이 그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포도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설움처럼 울컥 치솟았기 때문이었다. 그 때 문득 그의 눈앞에 다리가 길고 눈이 큰 여자 하나가 그려졌다. 고등학교 시절 옆집에 살았던 민희라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말 한 번 붙여 보지 못한 채 졸업할 무렵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린 아이였는데, 먼 빛으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쿵 뛰면서 목이 바삭 바삭 타들고는 했었다.

그런 여자, 민희를 꼭 닮은 여자를 만나서 그 레스토랑에 가고 싶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같은 것을 들으면서 모카 커피향속에 파묻혀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철수의 그런 기대감은 좀체로 현실로 다가와 주질 않았다. 어느새 9월이 다 지나가면서 늦은밤이면 옷소매 끝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파고 들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씩 힘이 빠져갔고, 가슴에 품고 있던 기대감도 바람이 빠져가면서 찌그러드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은 유난히 달까지 밝았다. 그는 귀뚜라미 소리를 헤치고 걸듯 힘겹게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달을 쳐다볼 생각도 못한 채 바지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고서 얼굴을 폭 숙이고 있었다.

그 때 철수의 눈길을 강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다. 전신주 밑에 무엇인지 반짝 반짝 빛을 발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가슴에 칼에 찔린 듯한 통증이 지나갔다. 그와 함께 가슴이 벌컥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주워든 물건은 여자의 팔목시계였다. 시계를 손바닥에 올려 놓아 보았다. 검정 가죽줄에 검정문자판을 가진 사각시계는 값을 따지기에 앞서 멋이 있었다. 가로등 불빛과 달빛을 받은 시계는 예쁜 여자의 눈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비로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그 팔목시계의 주인은 틀림없이 여자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시계의 모양새로 보아서 분명 나이가 젊은 사람일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시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지나온 길을 더듬어 올법도 할텐데 말이다.

그 날 밤 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다리가 길고 눈이 큰 민희가 코스모스꽃을 한아름 안고서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팔을 벌리고 달려가서 꽃과 함께 그녀를 안으려고 하자 금방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 속에서 꿈이 깨었고 동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반사적으로 머리맡의 시계를 보자 7시를 넘은 순간이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튕겨져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를 한 뒤,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하고서

집을 나섰다. 출근시간까지
대어가려면 빠듯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는 지난 밤에 시계를 주웠던
곳을 지날 무렵 바쁜 걸음
속에서도 무심코 주위를 살펴
보았다. 그 때 그의 눈길을 확
하니 잡아당기는 것이 있었다.
전신주에 손바닥만한 종이 한
장을 압정으로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람을
타고 팔락거렸다.

그는 그곳으로 다가가서
종이를 살펴보았다.

<미지의 사람에게. 여기서 제
팔목시계를 주으신 미지의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후사하겠습니다. 전화
645-1179 하회라 올림.>

그는 행여 험이 생길까 봐서
조심스럽게 압정을 뺐고 쪽지를
떼어 소중하게 가슴 속에 챙겼다.

그 날은 하루종일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결재를 올린 서류가
잘못되어 과장한테 심하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싱글
병글이었다.

하회라에게 전화를 건 것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 전에도 수백 번 걸고 싶었지만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참아야 했다.

“어머, 반가워라!
행운이에요!”

여자가 호들갑을 떨다시피

하면서 반가워 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꺾 꺾
눌러두었다. 예의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였다.

“예에. 저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코가
시큰거리려서 견딜 수 없어서였다.
눈 속에 가득 고여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젊은
분인가 보다. 미혼이신가요?”

아, 아쩌면 이렇게 용기가
있담! 여자가 먼저 미혼이냐고
묻다니……. 철수도 용기를
내기로 했다.

“물론입니다. 그럼 회라
씨도……?”

“물론이에요. 어머, 어머! 그럼
우리 처녀 총각이군요! 어디서
몇 시에 만나요? 집이 시계 주은
곳 어디신가 본데?”

“맞습니다. 저녁 8시 이후
회사일이 끝날 것 같으니까 8시
30분이면 좋겠는데…….”

“그럼 장소는 버스 정류장
부근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으로
해요. ‘해마’라는 레스토랑
아시죠?”

이런 일이 있나? 회라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았을까?
여인이랑 같이 바로 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듣고…….

“좋습니다. 레스토랑 ‘해마’로
가겠습니다. 8시 30분까지.”

그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다.

마침 그날 일과는 예상대로
8시에 끝나 주었다. 과장이 한 잔
사켰다면서 잡아 끌었지만, 급한
볼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택시를 탔다.

레스토랑에 들어선 철수는
회라를 한 눈에 알아 보았다.
아주 오래 전부터 자주 만나온
여인처럼 그녀는 붉은 장미 흰
송이를 손에 든 채 구석쪽의
아늑한 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는 구름 위를 걷는
걸음걸이로 그녀가 있는 탁자로
다가갔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를 맞았다.

큰 눈, 긴 다리……. 어쩌면
숙녀가 된 민희가 그를 찾아온
것만 같았다.

시계를 돌려준 뒤, 그녀에게
저녁을 먹었느냐고 물었다.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는
걸요.”

그도 역시 같은 생각으로
아직껏 저녁을 굶고 있던
참이었다. 그녀가 메뉴표를
펼치고 있었다.

“우리 바다가재 요리에
레드와인을 곁들여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그가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희라는 두 사람의 만남이 귀한 인연이요, 행운이요, 축복이라고 쉬임없이 되풀이 했다. 그는 희라의 말을 들으며 더없이 기분이 좋았다.
사실 철수는 바닷가재 요리는 처음이었다. 처음이어서 그런지 요리는 더욱 맛이 있었다. 음악이 있고 희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어쩌면 주은 시계를 돌려주고 대접을 받는 자리라서 더욱 그런지도 모를 일이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그녀가 핸드백을 열더니 은빛 포장지에 싼 물건 하나를 철수에게 내밀었다.
“선물이에요. 시계를 주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후사하겠다고 했었던…….”
길쭉하게 생긴 사각 상자를

그에게 내민 희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벽시계를 보았더니 벌써 12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그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서 그녀와 함께 계산대 앞으로 갔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희라가 계산대 앞을 그냥 지나쳐서 문계로 뚜벅 뚜벅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때 그는 희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돈을 치른 것으로 생각했다.
“계산하셔야죠”
그가 계산대를 지나쳤을 때 종업원이 그를 붙들었다.
“희라 씨가, 아니 저 여자가 안 했나요?”
종업원이 그의 허리춤을 움켜쥐려고 덤볐다.
“희라 씨! 계산 안 했어요?”
철수가 종업원을 피하면서 큰 소리로 물었다. 그의 지갑에는

3천원 밖에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가 무슨 음식값을 내요? 시계를 돌려준 답례는 아까 했잖아요! 3천원 짜리도 못 되는 시계를 가지고…….”
희라가 큰 소리로 말한 뒤 출입문을 빠져 나가고 있었다.
철수는 하는 수 없이 지갑을 꺼내 신용카드를 계산을 하면서 희라가 준 선물의 포장지 벗겨 보았다. 순간 그는 너무나 놀라서 하마트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100원 짜리 볼펜 한 자루가 달랑 포장지 속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허허거리며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서 가슴 속에 들어있던 기대감이 형편없이 찌그러드는 아픔을 참아내야 했다. ☹